

유관순 열사의 기독교 정신이 독립운동에 미치는 영향

이 권 수*

국문요약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증권은 할아버지 유윤기와 숙부 유증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영향을 받았다. 1908년 집안 할아버지인 유빈기가 세브란스의 의사인 미국인 케이بل 선교사와 친교를 맺으면서, 한 초가를 얻어 중을 달고 십자가를 붙인 다음 선교를 시작하였다. 이에 조부 유윤기와 숙부 유증무는 감화를 받아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며, 숙부인 유증무는 교회의 선교사로 일하게 되었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은 비무장, 비폭력적인 독립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일제는 총과 대검으로 적군을 공격하듯이 무자비한 진압으로 수많은 학생, 서민, 농민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유관순 열사가 참여한 제2차 서울 독립만세운동은 서울시내 학교와 이화학당 학생들이 참여하여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유관순 열사는 고향 천안으로 내려와서 기독교 집안인 가족들과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다.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천안 병천 아우내 장날에 만세운동은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과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유관순 열사에 대한 고문은 옥중만세운동 주도로 더욱 심한 고문을 당하여 19세에 순국하였다. 유관순 열사는 젊은 나이에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점에서 프랑스의 영웅 잔 다르크와 닮은 점이 많다. 독립선언을 했던 33인도 대부분 회유와 협박에 친일세력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는 끝까지 순교자 정신으로 굴복하지 않고 평화롭게 저항하다가 순국하였다. 이러한 유관순 열사의 순교자적 기독교 정신을 파악하고자 기독교 선교사의 영향, 기독교 신앙을 심어준 인물들, 기독교 학교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 유관순 열사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제어: 유관순 열사, 기독교 정신, 독립운동, 옥중 만세운동, 정신계승

논문투고일: 2021.12.01. 논문심사일: 2021.12.06. 게재확정일: 2021.12.17.

*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범죄학박사

목 차

I. 시작하며	IV. 유관순 열사의 기독교 학교 영향
II. 유관순 열사와 기독교 선교사의 영향	V. 유관순 열사의 기독교 정신 계승 연구
III. 유관순 열사에게 기독교 신앙을 심어준 인물	VI. 결 어

I. 시작하며

유관순 열사는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1920년 9월 28일 차가운 서대문 감옥에서 순국하였다. 당시 조선주차군사령관이 육군대신에게 한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4월 1일 충남 공주, 천안, 대전 각 군의 2개지점마다 300명 내지는 3,000명의 군중이 폭행을 일삼아 헌병이 군대와 협력해 발포 및 진압했다. 당시 일제는 폭민 사망자가 14명이고 부상자는 알 수 없다. 천안군 내의 사람이 전선을 절단하여 연락이 끊어진 폭거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¹⁾ 폭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적군같은 의미로 무자비한 진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제에 대한 유관순 열사의 강인함과 그 뜨거운 용기는 학교생활, 귀향활동, 옥중투쟁과 순국의 순간까지 꾸준하게 전개되어 온 항일독립만세운동의 상징이자 기수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²⁾

독립선언을 했던 33인도 대부분 회유와 협박에 친일세력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는 끝까지 순교자 정신으로 굴복하지 않고 평화롭게 저항하다가 순국하였다. 유관순 열사의 이러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순국하기까지 영향을 주었던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관순 열사는 평소 잔 다르크를 좋아했고 닮아가길 원했다. 유관순 열사가 좋아했던 잔 다르크는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 외삼촌 한분은 상파뉴에서 목사일을 보고 있었고,

1) 「大正8年」乃至同10년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共7冊 其1, [전보: 전국 각지의 시위 상황], 발신자 조선헌병사령관, 수신자 육군대신, 발신일 1919년 4월 2일.

2) 김기창, 「유관순 전기문(집)의 분석과 새로운 전기문 구성」, 『유관순연구』, 제2호, 2003, 81-121쪽.

오빠는 모두 세 명이었는데 모두 마을에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었다. 잔 다르크는 열세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점점 자주 들려왔다. 잔 다르크가 영국군에 포위된 오를레앙을 해방시킬 때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 영국군에 맞서 싸우라하신다”라고 외쳤다. 유관순과 잔다르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교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죽기까지 굴하지 않고 애국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과 기도의 힘이 작용되었다.³⁾ 유관순 열사의 어린시절 기독교 신앙을 전해주었던 가족과 부모님, 이러한 유관순 열사의 순교자적 기독교 정신을 파악하고자 기독교 선교사의 영향, 기독교 신앙을 심어준 인물들, 기독교 학교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II. 유관순 열사와 기독교 선교사의 영향

유관순 열사의 고향 병천은 조선의 중심지이고 전국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따라서 많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개신교를 전파하던 곳이었다. 당시 충청도 공주를 기점으로 북쪽은 감리교, 남쪽은 장로교가 선교 우선지역이었으며, 천안은 감리교 중심의 선교지였다. 유관순 열사의 숙부 유중무는 병천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1. 기독교 감리교 미국 여성 선교사 앨리스 해먼드 샤프(Alice H. Sharp, 한국명 사에리시)

유관순 열사에게는 현대교육과 기독교를 알게 해 준 귀한 스승이 있었는데 그녀가 앨리스 샤프 여선교사였다. 스승의 가르침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독교 사상이었고, 그 사상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만세를 주관하고 외치게 한 결과를 만들었다. 당시 조선은 남성과 여성 등의 성차별이 심하였고

3) 김춘식, 「유관순과 잔다르크 비교연구」, 『유관순연구』, 제8호, 2006. 29쪽.

평민과 양반의 불평등 사회구조였다. 엘리스 샤프 선교사는 특별히 어린 유관순 열사를 충남 병천에서 데려다가 자신의 양녀로 삼아 영명학교에서 중등과정을 2년간 가르친 후 더 나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일하던 이화학당에 교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보냈다. 엘리스 샤프 선교사는 1900년 조선에 파송을 받아 일제가 미국 선교사들을 추방하던 1939년까지 조선에서 기독교 전파 선교사역을 했다. 일생을 조선 선교를 위해 바친 그녀가 조선을 떠날 때 68세의 노인이었다. 은퇴 후 미국 LA지역 파사데나의 은퇴선교사 양로원에서 1972년 101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현재 파사데나 납골묘원에 안치되어 있다. 엘리스 샤프 선교사는 1871년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에서 태어나 1897년 미국 북감리회 여선교회 해외선교부에서 설립한 뉴욕 브루클린에 위치한 '선교훈련센터 뉴욕지회'에 들어가서 선교사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1900년 미국 '북감리회 해외여선교회' 소속으로 조선에 파송을 받았고, 서울에 와서 메리 스크랜튼 여선교사를 도와서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상동교회에서 주일학교와 순회전도자로서 사역을 하였다. 1903년에 로버트 샤프 선교사와 결혼을 하였는데, 그는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을 받아 아펜젤러 목사를 도와서 배재학당과 정동교회에서 일하던 선교사였다. 두 사람은 1905년 공주로 내려와 선교기지로 공주 최초의 양옥집을 짓고 충청지역 최초의 근대적 학교인 영명학교를 설립하였고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했다. 그러던 중 남편 로버트 샤프 선교사는 노방전도를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1906년 3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공주 선교사 묘지에 묻혔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방황하던 엘리스 샤프 선교사는 고난을 극복하고 일제가 미국 선교사들을 추방하던 1939년까지 충청지역의 여성들에게 복음과 교육을 위한 선교사역에 매진하였다. 그녀의 모든 청춘을 조선의 여성교육에 바쳤고 그 결과 한국의 많은 여성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을 배출해 냈다. 선교사 샤프(Alice Hammond Sharp)의 LA근교 로빈 크로프트 양로원에 보관된 자기소개서에 “한국에서 39년을 봉사하는 동안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우리가 설립한 여러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 주일학교와 교회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목회자와 교사, 전도부인, 의사와 간호사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선교사 샤프의 보고서 내용이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이나 공부에 갈증을 느끼는 같은 마음의 소년소녀들이 있었다. 그러나 학교가 없고 또 정작 학교를 시작할 때도 이 일을 담당할 선생들이 없다. 그리고 이 커다란 지방에는 단지 적은 수의 어린이들만이 공주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거나 서울과 평양에 있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가져다 준 큰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우리의 영혼은 짐을 진 느낌이다. 왜냐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적당한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한국 교회는 한국의 교실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영적 지혜뿐만 아니라 세속 학문에서도 소년 소녀들을 굳게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 안에는 놀라운 가능성들이 잠재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구속의 계획안에서 모든 왕국위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믿는다.”⁴⁾

2. 메리 F. 스크랜튼(Mary F. Scranton)

메리 F. 스크랜튼 아들 스크랜튼이 조선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한 것은 그의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튼에게 영향을 주었다. 그녀는 이번 기회가 소녀 시절부터 꿈꾸어왔던 해외선교사로서의 포부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녀는 1832년 12월 9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벨처타운(Belchertown)에서 출생하였다. 그녀의 아버지 벤톤(Erastus Benton)은 감리교회의 목사로서, 그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다. 따라서 젊은 시절부터 선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한때 감리교 여성교회 총무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그녀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의 제조업자인 스크랜튼(William T. Scranton)과 결혼하고 바로 아들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을 낳은 단란한 가정주부가 되었다. 그러나 스크랜튼 여사는 40이 되던 해에 남편을 잃고 말았다. 이때 아들 스크랜튼의 나이는 16살이었다. 그녀는 남편 없이 아들을 키우는 동안 평소에 그가 꿈꾸던 대로 하나님께 국외의 선교사로서 파송되기를 기도했는데, 아들이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하자 자신도 결단하게 된 것이다. 때마침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조선에 가서 사역을 감당할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여 역사상 최초로 아들과 어머니, 모자(母子) 선교사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때 그녀의 나이는 53세였다.

4) “영명100년사”, 218쪽.

미국 감리교회의 남녀 선교부에서도 이 모자의 청(請)을 기쁘게 받아들여 이들을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뉴욕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스크랜턴 목사 일가(一家)는 드디어 1885년 1월 21일 조선을 향해서 뉴욕을 떠난다. 일행은 스크랜턴 부부와 그들의 어린 딸과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 등 모두 네 명이었다. 이들은 뉴욕을 떠나 조선에서 같이 사역하게 될 아펜젤러 부부와 합류하게 되어 있었다. 이때 아펜젤러는 27세, 스크랜턴은 29세였다. 모두 20대의 젊은이로서 자신에 넘치고, 야심만만하고, 건장한 사나이들이었다. 이들은 비로소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인사를 하고, 그들의 젊음을 불태울 조선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두 선교사는 앞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때로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조선을 위하여 사역하게 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던 것이다.

1886년(고종 23) 해외여성선교회에서 파견한 사람이 메리 F. 스크랜튼(Mary F. Scranton)이다. 그는 서울 황화방(皇華坊, 지금의 중구(中區) 정동(貞洞)에 이화학당을 설립하였으며, 이화학당은 조선 최초의 사립 여성교육기관이다. 제1대 당장인 스크랜튼의 교육이념은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한국여성들을 '더 나은 한국인으로 양성하는 것', 즉 한국인의 긍지와 존엄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근대적 여성교육은 사립여학교로부터 비롯됐다. 우리나라 최초 근대 여학교는 1886년 스크랜튼 부인이 세운 '이화학당'이다. 당시 기독교 사립여학교들이 지향했던 인간상은 '한국적 여성'과 '기독교적 여성'이다. 설립자 메리 F. 스크랜튼(Mary F. Scranton) 부인은 이화학당의 교육목적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목표는 여아들을 외국인의 생활, 의복 및 환경에 맞도록 변하게 하는 데 있지 않다. 현지에서 우리 학생들의 생활 전부를 바꾸어 놓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 오해다. 우리는 단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드는 것으로써 만족한다.”

설립초기 설정한 이화학당의 교육목적은 당시 조선의 사회분위기와 맞물린다. 즉 유교질서가 공고한 사회에서 여성이 교육을 받기 위해 나들이 하는 것 자체가 쉽게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1882년 이후 강압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체결로 막대한 이권을 챙겨가는 서양인에 대한 굵지 않은 시선도 작용했다. 이화학당은 초등교육으로 시작해 중등과는 1904년에, 대학과는 제4대 학당장인 미국인 윌루 프라이가 취임 후 1910년에 설치됐다. 1914년에는 유치원과 유치 사범과도 생겼다. 이화학당 안에 유치원과 대학과정까지 종합교육과정이 마련돼 교육목적과 교육범위가 전 연령대로 확장됐다. ‘보다 진보 한 한국인’, ‘한국적인 기독교인’, ‘기독교 가정 형성을 위한 현모양처 양성’을 지향한 이화학당의 목적은 설립자 스크랜턴 부인부터 4대 학당장 프라이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발전과정을 거치며 체계화됐다. 1886년부터 25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과를 포함한 전인적인 여성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3. 프랭크 윌리엄스(우리암) 선교사

명설학당이 폐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암 선교사가 학생 15명을 모집하여 중흥학교(中興學校)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교하였다. 그 후 영명학교(永明學校)로 개명하여 1909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았다.⁵⁾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우리암, 1883~1962)는 35년간 공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명학교 교장으로 헌신하며 기독교 인재를 양성한 선교사이다. 그는 콜로라도주 뉴원저에서 태어나서 1906년 덴버대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북감리회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1906년 부인 엘리스 베이트(1884-1980)와 함께 인천에 도착하여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그 후 공주에서 사역하던 샤프 선교사의 순직으로 인해 후임으로 공주 선교부에 배정받았다. 그는 공주에서 공주제일교회를 담임하였고, 천안, 홍성, 서산, 안면도, 음성 등에 복음을 전하였다. 1908년 여주 사경회에서 설교하여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1908년 4월 공주에서 안창호 목사와 함께 회개의 일어나는 사경회를 인도하였다. 또한 공주 명선학교를 영명 남학교(현 영명고)로 개칭하고 복음과 신학 및 실업 교육을 가르쳤고, 이곳에서 교장으로 30여년을 헌신하였다. 그는 영명학교 학생들이 3·1운동을 포함되어 여러 민족운동에 앞장선다는 이유로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했다.

5) 박철희, 「공주지역 독립만세운동의 재조명」, 『한국문화도서관』, 2008. 11쪽.

당시 미감교회 천안지방 감리사이던 윌리엄스 선교사가 1919년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정동제일교회에서 열렸던 미감리교회 조선연회에서 유관순 열사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하였다.⁶⁾

“천안 동구역은 본 구역의 중심지 되는 병천시장에서 지난 4월 1일에 장날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이 시위운동을 열렬히 하는 동시에 일본헌병에게 이십여 명이 참혹한 경지를 당하는 중에 신자가 3인이었으며, 그 중에 제일 함혹한 것은 한 교우의 가족이 당한 사실이다. 주인 부부는 참살을 당하였고, 그의 여식은 3년 징역에서 선고를 받았고, 그의 어린 아이 2명은 의지할 곳 없는 가련한 경지를 당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지이다. 큰 환란을 당하였으나 신자들이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오직 전진하여 교회 일을 처리하는 중이다”(기독교미감리회조선연회록 제20회:75)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제의 무자비한 진압 속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그 이후 조선에서 추방 후 인도로 가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광복된 후 다시 돌아와서 미군정의 농업정책 고문관으로 한국 농업발전에 기여했다. 그후 6.25전쟁 때 다시 선교사로 복귀하여 폐허가 된 지역에서 전쟁 복구를 위해 헌신하였다. 그리고 1953년 선교사 직을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다가, 1962년 샌디에고에서 소천하였다.

Ⅲ. 유관순 열사에게 기독교 신앙을 심어준 인물

1. 유관순 열사 할아버지 유인기, 부친 유증권과 어머니 이소제의 기독교 신앙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증권은 사회개혁운동과 계몽운동을 통해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이 지극하였다. 수시로 자녀들에게 배움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유관순이 여덟 살이 된 던 때에 아버지

6) 김춘식, 「유관순과 잔다르크 비교연구」, 『유관순연구』, 제8호, 2006. 17쪽.

유중권은 유관순에게 선물을 주었던 놀라운 일화가 있다. 대부분 부모님은 어린아이에게 장남감 등을 선물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은 남달랐다.

“관순아! 자 생일 선물이다. 관순에게 보자기에 싼 조그만 물건을 내밀었다. 아버지 펼쳐 보아도 되겠지요, 오냐, 아주 귀한 물건이니, 잘 간직해야 한다. 관순은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펴보았다. 관순이가 아버지에게 받은 선물은 하얀 무명 태극기였다”⁷⁾

할아버지 유윤기(柳潤基)와 숙부 유중무(柳重武), 아버지 유중권이 기독교를 믿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유관순은 자연스럽게 기독교 신앙 아래에서 생활하고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유관순 열사의 형제는 언니 계출, 오빠 유우석, 남동생 유인석, 유관석이 있다. 공주 영명학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구속된 친오빠 유우석 사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관순 열사의 고향 동면 용두리의 기독교인 유관순, 유중권, 유중무, 조인원 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 활동결과에서 알 수 있다.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유중권은 1907년 8월 유중권, 유중무 등이 중심이 되어 목천 이동면 교인 82명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였으며, 평소 그의 말과 행동 등을 통해 나라사랑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다. 유관순 열사는 아버지의 뜨거운 나라사랑 정신을 많이 본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기독교 가정의 유관순 가족들은 3월 16일 주일 저녁예배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다.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제, 숙부 유중무, 동네 어른 조인원(조병옥 부친) 등과 서울 등지에서의 독립운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병천 아우내 장날에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들은 아우내 장날에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자 수많은 군중들도 만세운동에 동참을 하였다. 충청남도 천안 지역에는 헌병분대와 입장(입장, 양대)에 2개 주재소, 성환, 목천, 복면 광덕, 풍세, 병천에 1개 주재소가 있었다.⁸⁾ 1개 헌병분대와 8개 헌병주재소가 있는 것이다. 당시 유관순은 만세운동에 앞장서서 행진하던 중 일본 헌병의 총검에 옆구리를

7) 김옥에, 『유관순』, 국민서관, 2002, 11쪽.

8) 조선총독부 관보 1914년 8월 27일 호외 1호, 조선총독부 고시 제338호(34쪽)로 1914년 9월 1일에 설치되었다.

찢려 피를 흘리며 연행되고, 아버지 유중권, 어머니 이소재도 일본 헌병에 의해 현장에서 잔혹하게 총과 칼에 피살되었다.

2. 숙부 유중무의 기독교 신앙, 자녀 유경석과 노마리아 부부

노마리아의 증언에 따르면,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 어머니가 다 시장에서 총을 맞았어. 관순이 어머니는 시장에서 즉사하고 관순이 아버지는 옆구리를 맞았는데, 생명은 붙어있었으니까 말도 하고 그래 집에 떠메고 들어왔어.”⁹⁾

노마리아의 남편되는 유경석은 충남 천안에서 유관순의 아버지인 류중권의 친동생 류중무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지령리에서 1903년부터 1910년까지 한문수학을 한 후 1910년 공주 영명학교에 입학하여, 보통과를 2년 만에 수료하고 1912년 고등과에 진학하여 1915년에 졸업하였다.¹⁰⁾ 1916년 4월 3일 영명학교 제1회 졸업생인 노마리아와 결혼하여 부부가 함께 문맹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다가 3·1운동으로 아버지 유중무와 사촌동생 유관순이 붙잡혀가고 헌병대에서 동생 유예도를 수배하자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피신해 다니다가 동생을 흥성 한태유 목사의 동생 한철유에게 시집보내고 본인은 일본으로 피신하여 공소시효가 끝날때까지 10년간 가족과 떨어져 숨어 살았다. 그 후 돌아와 부인 노마리아와 함께 공주에서 공금학원(公鎗學園)을 운영하며 교육운동을 폈다. 해방 후 교도소의 교무주임으로 근무하는 한편 공금학원을 운영하며 평생을 문맹자와 가난한 아동들을 위한 교육에 헌신하였다.

유관순 열사가 보통과 4학년으로 올라가기 전인 1917년 2월 28일 사촌오빠 유경석과 올케 노마리아 사이에서 첫 조카 유제경이 태어났다. 유관순은 새로 태어난 조키에게 줄 모자를 코바늘로 떠서 방학 때 가져왔다. 조카 유제경은 유관순이 선물한 이 모자를 어른들로부터 받아 85년간 간직해 오다 유관순 열사의 탄신 100주년 때 천안대학교 유관순연구소에 기증하여 현재 백석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방문객 모두가 관람하고 있다.

9) 노마리아 증언.

10) 이정은, 「불꽃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사단법인 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 2005. 445쪽

3. 유관순 열사의 사촌언니 유예도

유관순 열사의 사촌언니이자 유경석의 동생인 유예도(柳禮道)는 1896년 8월 15일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부평리 254번지에서, 아버지 유중무와 어머니 김씨 사이에서 3남 4녀 중 장녀로 출생하였다. 그녀는 일찍이 기독교를 믿어오던 중 선교사에게 그의 총명함이 발견돼 이들의 주선으로 이화학당에 들어갔다.¹¹⁾ 아버지 유중무는 딸의 이름을 성경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예도라고 지었다. 유관순이 이화학당에 가자 먼저 와 있던 예도와 둘은 함께 이화학당에 다니며, 같은 기숙사를 썼다. 아우내 만세시위 때 유관순은 17살이었고, 유예도는 23살이었다. 유예도의 성격은 온순했다고 한다. 유제경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내가 보기에는 유관순 계통 우리 큰할아버지 계통은 열렬하고 투쟁적이고, 이쪽 우리, 우리 할아버지 계통으로는 평화적이고 온순한 편이었어 내가 볼적에는 그니까 유관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일본 순경이 썩 죽인거 아니여. 총으로 쏘서. 열렬하게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수습만 하고, 대표로 형무소에 가서 3년인가 살았지. 그니까 혈통이 유관순계통은 열렬하고, 이쪽은 온순한 계통이고 난 그렇게 봤어. 류예도 할머니도 내가 볼 적에는 성격이 우리 할아버지하고 같어. 같은 혈통이니까.”¹²⁾

노마리아의 증언에 따르면, “이화학당에서 친 시누이 유예도하고 사촌 시누이 유관순 열사하고 사촌형제가 학교에서 폐쇄령이 내려져서 천안으로 내려왔어. 천안으로 내려와서 있는데, 그때 우리 내외는 그때 충청남도 아산 둔포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다 내놓고서 천안집으로 시택으로 내려와서 있었어. 그런데 두 달도 못 돼서 관순이 하고 예도 하고 서울서 내려와서 저녁이면 나가고 해서 어딜 나가나 알아봤더니 3·1일 아우내 장터 장날 만세 부를 거 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태극기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계몽하고 선전하고 그렇게 돌아다녔어”¹³⁾ 이 진술로 보면 친 시누이 유예도는 유관순 열사와 같은

11) 홍석창, 「매봉교회가 낳은 민족의 보배 유관순」, 『한국감리교사학회』, 2005. 116쪽

12) 유제경의 인터뷰. (2009년 3월 18일 녹취)

13) 노마리아의 증언, 1974년.

신앙과 독립운동에 대한 동지로서 함께 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진술을 살펴보면 태극기를 그린다는 것은 매우 비밀스러운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유관순 열사와 유예도 뿐이었다. 두 사람이 전담하여 밤을 새워 가며 태극기를 그리고, 만세운동 당일 장터 어귀에서 밤새 만든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러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유관순 열사의 사촌언니 유예도는 독립운동, 신앙생활을 함께했던 든든한 동지임을 알 수 있다.

4. 유빈기, 조인원 선생

유관순의 일가인 유빈기(柳斌基)는 케이블(E. M. Cable, 한국명 奇怡富) 선교사와 함께 고향에 개신교를 중흥시키고자, 1908년 조인원(趙仁元) 등과 함께 불타버린 지령리 교회를 다시 세웠다. 이후 숙부 유중무가 선교사로 교회를 이끌면서 유관순도 5~6세를 전후하여 개신교를 접하게 되었다. 당시 천안으로 귀향한 유관순은 부친 유중권과 조인원 등 기독교 인사들과 연계하여 독립만세를 준비하였다.

조병옥 박사와 부친 조인원 선생은 유관순 열사와 함께 천안 만세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1864년 5월 2일 충청도 목천현 이원동면 용두리(現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용두리 지령마을)에서 아버지 조재형(趙載衡)과 어머니 선산 곽씨(善山 郭氏) 사이의 네 아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919년 4월 1일(음력 3월 1일) 유관순 열사 등과 함께 갈전면(현 병천면) 아우내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사전에 계획, 실행에 옮겼다. 사실상 3·1 천안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선봉장이자 지휘자이기도 하다. 4월 1일 오후 1시경 아우내 장터로 모여든 3천여 명의 시위군중 앞에 나아가 태극기와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세워놓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대한독립만세를 힘차게 선창함으로써 아우내 장터의 독립 만세시위를 점화시켰으며, 3천여 명의 군중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절규하며 장터 안을 행진하다가 여세를 몰아 헌병주재소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이 기세에 놀란 일본 군경들이 야만적으로 총기를 난사하고, 또 천안에서 불러들인 일본 헌병과 수비대까지도 포악무도하게 총검을 휘둘러, 유관순의 아버지 유중권 등 19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30여 명이 부상당했다. 오후 4시경 사망자의 가족과 시위군중이 일본 군경의 흉탄에 맞아 순국한 시체를 헌병주재소로 옮겨놓고

강력하게 항의할 무렵 그는 차남 조병호(趙炳鎬), 유중권의 동생 유중무·유관순 등과 헌병주재소로 달려가 웃옷을 벗어제치고, 주재소장과 헌병들에게 강력히 항의하다가 체포되었다. 결국 그 해 5월 9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언도 받아 항소하였으며, 6월 30일 경성복심 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 혐의로 원심판결이 취소되고 다소 감형된 징역 3년 형을 언도받았다. 그는 상고하였으나 9월 19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상고 기각되고 징역 3년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옥고의 여독으로 고통받다가 1931년 7월 25일 별세하였다. 그 정신을 이어 조병옥 선생은 미국 유학시절 응사단, 북미대한인 유학생회의 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독립운동의 진상을 미국에 알리는 외교활동에 힘썼다.

5. 이화학당 학교장 윌터

일제는 유관순 열사가 사망하자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방치 해 두었다. 이는 사체부패로 인한 사인에 대한 귀책 사유를 철저하게 은폐하고자 함이 보여진다. 이화학당에서 시신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학교장 윌터가 이러한 사실을 세계 언론에 알리겠다고 항의를 하자, 시신을 인도하였다. 학교장 윌터는 이날의 기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몇 달 후 16세 소녀 유관순이 감옥에서 죽었다. 우리는 그의 시신을 학교로 찾아왔다. 소녀들은 무명으로 수의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유관순 이야말로 정말 영웅이라 여겨 비단을 사다가 수의를 다시 만들어 입혔다. 그의 장례에는 동급생들만 참석하여 교회에서 조용히 지내야한다고 허락을 받았다. 그들은 걸어서 묘지까지 따라가고 싶어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으므로 나는 말썽이 날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김활란 선생이 자기가 그들의 대표로서 그리고 담임선생으로서 윌터선생을 따라서 장지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났다. 그러나 유관순은 잊혀진 것이 아니다. 훨씬 후 한국이 독립되었을 때, 유관순의 생애에 대한 영화가 제작되어 전국에 상영되었다. 나는 그 영화에서 선생으로 나왔는데, 당시에 내가 한국에 있지 않아서 엠마 윌슨 선교사가 그 역할을 했다. 1959년에 내가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유관순의 학교(이화학당)에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때 나는 유관순의 시체가 토막 난

상태가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내가 그에게 수의를 직접 입혔기 때문이다.”¹⁴⁾ 1911년 한국 땅을 밟은 월터는 1920년 이화학당 교사로서 학당장(교장) 대리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유 열사의 옥중 순국 소식을 접하고 서대문 형무소를 직접 찾아가 시신을 인수하고 모든 장례 절차를 직접 주관했다. 월터는 유 열사의 관을 마련하고 준비했던 무명수의를 직접 입혔다가 학생들이 ‘진정한 나라의 영웅’이라며 새벽에 비단 수의를 만들어 오자 다시 갈아입히는 일을 했다고 1969년 펴낸 자서전에서 회고했다.

6. 김복순, 국현숙, 서명학, 김희자 등

유관순 열사는 이화학당에서 선진 학문을 공부하며 ‘잔 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하는 소녀가 될 것이다’라고 다짐하였다. 평소 유관순 열사가 ‘잔 다르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화학당에서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이문회’를 통해 시국에 대한 강연 및 조국 독립을 기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당시 이화학당에서 시국강연, 조국독립 기도회 등은 뜨거운 나라사랑 유관순 열사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던 유관순 열사는 1919년 3월 1일 유관순 열사는 서명학, 김복순, 김희자, 국현숙과 함께 ‘5인의 결사대’를 결성하여 소복을 입고 대한문 앞에서 곡을 한 뒤 남대문으로 향하는 시위에 참여하였다. 당시 결사대라는 표현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신념으로 보여진다. 3월 5일 학생 연합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곧 석방되었다. 유관순 열사는 3월 10일 일제에 의해 전국에 휴교령이 내려지자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IX. 유관순 열사의 기독교 학교 영향

1. 기독교 영명학교

1903년 감리교(監理敎) 윌리엄 린튼(William A. Linton) 선교사와 부인 샬롯

14) Aunt Jean by Jannette Walter, 1970, Boulder, Colorado, Johnson Publishing Company.(진아주머니, 월터자서전) p.143

위더스푼 벨(Charlotte Witherspoon Bell)이 공주읍 중동 318번지 현 기독교 사회관 자리에 학교를 열어 수명의 남녀 학생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영명학교의 출발이 되었다. 여학교의 초창기 이름은 명선학당으로 시작되었다. 남자 학교는 명설학교로 시작되고, 여자 학교로는 명선학교로 시작되지만, 1909년 대한제국으로부터 영명학교로 개명하여 인가받은 것이다. 공주에서는 1904년부터 사(史) 선교사에 의해 미미하지만 명설학당(明設學堂)이라는 이름으로 남학생의 교육활동이 전개되었고, 사에리시(史愛理施, Mrs. Sharp Alice)는 1905년에 명선학당(明宣學堂)을 설립하여 여학생을 교육하였으나, 남편의 별세로 명설학당이 폐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암 선교사가 학생 15명을 모집하여 중흥학교(中興學校)라는 이름으로 다시 개교했다. 그 후 영명학교(永明學校)로 개명하여 1909년 대한제국정부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받았다.¹⁵⁾ 1906년 10월 15일에 현 영명중·고등학교(永明中·高等學校) 구관(舊官) 터에서 정식 학교 이름을 걸고 개교하였으나 학생 모으기가 쉽지 않아 수업료 면제는 물론이거니와 교과서 학용품의 무료제공, 용돈제공이라는 특전을 베풀었으나 학생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영명학교 제3회 졸업생 윤창석(尹昌錫)은 3·1운동의 한 계기가 된 동경(東京) 유학생 대표로서 2·8 독립선언을 주도하는 역할을 다하였다. 3·1운동 때는 교사 김관희의 지도 밑에 김수철·유준석(유관순의 오빠) 등이 주동이 되어 공주 공설시장으로 뛰쳐나가 독립만세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샬롯 부인은 유관순(柳寬順)을 발탁해서 영명학교에서 잠시 교육시키다가 다시 이화학당(梨花學堂)으로 보낸 연고를 갖고 있다. 1921년 현 영명중·고교의 구관건물이 완성되는 등 차츰 학교가 발전의 궤도에 올랐으나 1930년 중기에 접어들면 일제의 기독교계 학교 탄압이 점차 가혹해져 그 이상 버릴 수 없게 되었다. 1940년 12월 총독부 당국은 우리암 교장의 강제출국을 명하여 귀국하게 되었고, 이후 신사참배 거부 등으로 취해진 일련의 조치에 따라 영명학교도 1941년 7월 30일 강제폐교를 당하였다. 대개 이렇게 폐교된 학교들이 8·15 광복 후 거의 다시 문을 열었으나, 1949년 9월 28일에 가서야 졸업생인 전 충청남도 지사(知事) 황인식을 2대 교장으로 영입해서 재출발하였다. 강제폐교 당시까지 1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15) 박철희, 『공주지역 독립만세운동의 재조명』, 한국문화도서관, 2008. 11쪽

그 중에는 정치가 조병옥(趙炳玉) 소설가 방인근(方仁根) 등 훌륭한 인사들이 배출되었다.

2. 이화학당

이화학당은 1886년 해외여성선교회에서 파견된 메리 F. 스크랜튼(Mary F. Scranton)이 서울 황화방(皇華坊), 지금의 중구(中區) 정동(貞洞)에 설립한 조선 최초의 사립 여성교육기관이다. 제1대 당장인 스크랜튼의 교육이념은 기독교 교육을 통하여 한국 여성들을 '더 나은 한국인으로 양성하는 것', 즉 한국인의 긍지와 존엄성을 회복하고 진성한 한국인을 육성하는 것이었다. 이듬해인 1887년 2월에는 고종황제가 외아문을 통해 '이화학당(梨花學堂)'이라는 교명과 현판을 하사하였다. 이는 조선의 사액서원에 비견되는 것으로서 이화학당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최초의 근대식 여학교임을 의미한다. 이화라는 교명은 '배꽃같이 순결하고 아름다우며 향기로운 열매를 맺으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한 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이화학당은 점차 학제를 정비하여 1904년에는 중등과를, 1908년에는 보통과와 고등과를 신설함으로써 마침내 보통·중등·고등과정의 일관된 학제를 마련하였다. 이화가 중등과를 먼저 설치한 것은 이화의 교육이 여성의 고등교육을 지향해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교사 양성이 시급했던 당시의 사회적 요구를 수렴한 것이었다.

이화학당의 이문회 활동을 확인하며, 2월 28일 열린 정기모임에서 3월 1일에 전교생이 소복을 입고 대한문(大漢門) 앞에 나가 망곡(望哭)을 하고, 만세 대열에 참여한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학교 측은 이문회의 이러한 결정을 미리 알아차리고, 수위로 하여금 문을 잠그게 하였으며, 선생들이 교정 곳곳에서 지켰으나, 15명 정도가 수위를 밀치고 나가 군중과 합세하였다.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비밀결사대를 조직하여 3·1만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유관순 열사도 이 비밀결사대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이화학당 이문회 모임은 이화학당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사회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시국에 대한 강연을 듣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하던 유관순은 5인의 결사대에 참여하여 조국광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서 조국독립을 위한 기도모임 등을 통해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화학당은 1908년 6월 5명의 제1회 중등과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1910년에는 4년제의 대학과를 설치하여 1914년 4월 신마실라·이회숙·김애식 등 한국 최초의 여대생을 배출하였다. 아울러 1914년에 이회유치원을, 1915년에 유치원 사범과를 차례로 신설하고, 1917년에는 중등과를 대학예과로 개편하였다. 또한 1918년에 보통과와 고등과를 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로 분립 개교하였고, 1925년에 대학과와 대학예과를 이화여자 전문학교로 개편하였으며, 1928년에 유치원 사범과를 이화 보육학교로 독립하였다.

3. 천안 매봉교회

1898년 선교사 스웨러(Wilbur. C. Swearer)에 의해 설립된 충청도 목천군 이동면 지령리의 기도처는 구한말의 민족적 수난기에 민족을 위해 앞장섰다. 그 여파로 천안 매봉교회는 1905년 단발령에 저항하는 폭동을 주도하였다. 1907년 고종 폐위와 군대 해산에 의한 소란으로 진압하는 일본군이 천안 매봉교회를 두 번이나 불태웠다. 이에 1908년에 지령리 교회를 다시 설립하고, 1910년에 진명학교를 설립하여 민족정신을 일깨웠으며, 1919년 아우내 장터 만세 운동시 유중권, 조인원 등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가담했다가 수 많은 교인들이 순국하고 유관순 열사도 이때 체포되어 순국하였다. 이후 교회는 일본 경찰의 철저한 감시 속에 핍박을 받다가 결국 1932년에 폐쇄 조치를 당했다. 이후 1966년에 다시 재개척하여 이듬해 이화 여자 고등학교의 지원으로 기념 교회가 세워지면서 매봉교회가 되었고, 1998년에 기독교 대한 감리교단의 지원으로 다시 기념 교회를 건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V. 유관순 열사의 기독교 정신 계승 연구

1.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의 유관순 열사 연구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는 3·1만세 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뜻을 연구하고, 민족의 자유독립이 지닌 의미를 탐구하며 국가발전과 인류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0년 10월12일에 설립되었다.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는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지역 독립운동가 발굴 및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관순 열사가 여성독립운동가의 상징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기독교와 교회가 있다. 유관순 열사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배웠으며, 교회에서 만세운동을 하였고, 교회에서 장사를 치렀다. 한국의 잔 다르크인 유관순 열사의 무덤은 파헤쳐져 다시 찾을 길이 없지만 그녀의 정신은 아직도 우리들 가슴 속에 살아있다. 유관순 열사는 하나님 사랑이 곧 나라 사랑임을 몸으로 실천한 운동가였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준 진정한 영웅이었다. 유관순

연구소는 유관순 열사 및 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학술 중흥을 도모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 유관순연구소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관순 열사 관련 학술연구 및 지원, 자료 수집 및 보존, 학술지 및 도서를 간행하고, 유관순 열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연구 교류 등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백석대학교 유관순연구소는 2000년 10월 12일에 창립되어 2001년 5월 탄신 10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는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2002년도에는 유관순 열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고, 「유관순 연구」 창간호를 발행했다. 「유관순 연구」 논문집 발행을 통해 학술연구 활동 및 독립운동 정신 계승의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했으며, 유관순 및 독립운동 관련 연구 논문을 비롯한 인문학 관련 논문을 통합해 편찬함으로써 유관순 열사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인문학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2003년도에는 제1회 유관순 학교 운영과 함께 제3회 유관순 연구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유관순 연구」 2집을 발간했습니다. 유관순연구소는 유관순 학교 운영을 통해 충청 지역의 자랑스러운 애국 열사인 유관순의 생애와 삶을 청소년 및 아동이 체험하게 함으로써 민족 정신을 함양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관을 정립하도록 돕고 있다.

이처럼 유관순연구소는 꾸준히 유관순 학교와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술연구 및 충남 중심의 애국심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2011년에는 독립을 향한 당당한 외침 ‘유관순 이야기’ 영어판과 일어판을 출판했으며, 2013년도에는

불어판, 중국어판까지 출판했다. 2016년도에는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와 MOU를 체결했고, 2019년도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유관순 열사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유관순 연구소는 이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2020년에는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기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유관순 열사의 나라 사랑과 독립을 향한 열망을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국내외 학술회의를 통해 국내 전문가 및 독립운동 연구 활동가, 해외 독립운동 연구 활동의 상호교류를 확대하며 충남이 정신계승의 메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유관순 연구」는 지금까지도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2. 유관순 열사 나라사랑 정신 계승

유관순은 고향으로 내려오는 기차에서, 달컹거리는 기차소리를 친구들이 ‘동전 한 푼 동전 두 푼’ 하는 것 같다고 하자, 유관순은 ‘조선독립! 조선독립!’ 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다. 귀향한 유관순은 부친 유중권과 조인원 등 기독교 인사들과 연계하여 독립만세를 준비하였다.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서울의 3·1운동 소식을 전하고, “삼천리 강산이 들끓고 있는데 우리 동네만 잠잠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만세 시위운동의 필요성을 설득하였다. 유관순 열사가 말한 ‘삼천리 강산이 들끓고 있다, ‘우리 동네만 잠잠할 수 있느냐’ 표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독립운동의 열망을 표현한 것이다. 유관순 열사는 밤새도록 태극기를 만들었다. 태극기를 그린다는 것은 매우 비밀스러운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태극기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유관순과 유예도뿐이었으므로 두 사람이 전담하여 밤을 새워 가며 그리게 되었다. 유관순 열사는 장터 어귀에서 밤새 만든 태극기를 나누어 주면서 만세 시위운동에 참여하려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한 옥중에서 유관순 열사가 투옥 중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으깨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고 써놓았다. 또한 “내 나라에 내 목숨을 바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회한입니다”라는 발언을 볼 때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심한

고문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심한 고문중에서도 오직 유관순 열사의 나라사랑 정신은 글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3. 유관순 열사의 예수님의 길, 순교자 정신 계승

유관순열사는 예수님처럼 순교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유관순의 가정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부친 유중권과 모친 이소제가 현장에서 순국하였고, 오빠 유준석도 독립만세를 외쳤다가 석방되었다. 이어 아들과 며느리가 순국한 몇 달 후 조부 유윤기까지 사망을 하였다. 3·1운동의 현장을 직접 지켜본 노마리아는 유관순의 아버지인 유중권씨의 집에 같이 있었다.

“너의 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천안으로 붙잡혀 갔다고 해서 거기 좀 돌아다니며 본다고 나갔다 오는데, 그놈들이 총에다 칼을 꽂아서 셋이, 할아버지는 앞에 오고 그놈들 셋은 뒤에 오더라구. 그때 관순이 아버지, 큰아버지가 운명하려고 그래. 동네 사람들이 모두 일가니까 가뜰 모였어. 한 30명이 모였는데. 그 앞으로 지나가더니 우리 집 뒤지고 조 박사님 뒤지고 관순이 집으로 왔어. 오니까 촌 양반들이 걸음아 날 살려라하고 확 하고 도망갔어. 그래서 나 혼자 나 아버지를 엮고 뜰 방에 썼어. 그랬더니 들어와 썼어. 그러더니 “야 이년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냐고” 왜놈이 그러더라구. 그래서 “사람이 아파서 죽으려고 하니 모였다.” 하니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너희가 총을 쏘서 죽으려고 한다는 소리가 여기까지 나오지만 그렇게 하면 날 또 뚜드릴 터이니까 그 소리를 못하고” 꿀꺽 꿀꺽 참고서 아무말도 못하고 있었어. 있었더니 방을 이렇게 들여다 봐. 들여다보니 조병욱 박사 동생이 머리맡에 수건을 지끈 매고 앉아있었어. 얼굴 못 보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한 놈이 들어가서 탁 때리니까 수건이 벗겨졌단 말이야. 수건이 벗겨지니 “아하! 이놈이 장날에 지랄을 많이 한 놈이라” 그러더니만 때리더라고.”¹⁶⁾

만세운동 이후 유관순은 자신의 부모가 죽고 난 후 자신의 도피에 회의를 느끼고 순교의 각오로 당당히 일본 헌병 앞에 스스로 나타났다.

16) 노마리아의 증언, 1974년.

“그런데 한 번은 동네 애들이 올라오면서 그래. 날만 새면 정보원이지. 오늘날 형사지. 그들이 논둑 밑에 엎드려서 관순이 네 보고 우리 집보고 그러. 그런데 관순이가 들어왔다고 그래, 관순 네 집은 방문을 각개로 해서 열십자를 비뚜르 해서 방문을 철갑을 해놨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그런데 관순이가 이게 뭐냐고 하면서 죄다 뜯어 채켰대. 방문 활짝 열어놓고 들어가서 말장 비질하고 걸레 빨아다 방 다 닦고 앉았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죽었는데 나도 죽으면 그만이지. 생명 구구하게 살려고 피신 다닐 필요가 뭐냐고 하면서 문 열어놓고 앉아있었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잡아갔단 말이야. 그러니 동네가 다 우썸니가 아이구 저 아래 관순이 잡혀갔다고 아단났어. 당체 정신이 없는데도 그걸 풀을 하고 두드리고 앉았는데, 쑥 들어오데 관순이가. 그런데 두 놈들이 들어오데. 조금 물어볼 말이 있어서 병천까지 데려가 올 테니까 점심 해 줘다 주세요. 그래. 그놈들이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난 다 알아듣고 아무 말도 안하고 관복이하고 관석이 하고는 쫓아와서 저희누나를 붙잡고 울어”¹⁷⁾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은 이신애, 어윤희 등과 함께 3·1운동 1주년 기념식을 갖고, 더 심한 고문을 각오하고 옥중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과정 중 유관순은 법정에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들을 수없이 죽이고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였으니 죄를 지은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형벌을 줄 권리는 있어도 너희들은 우리를 재판할 그 어떤 권리도 명분도 없다”라고 하면서 일제의 재판을 거부하는 당당함과 민족적 기개를 잃지 않았다고 한다. 감옥과 검사국을 오가며 검사의 신문에 당당하였고 재판과정에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독립을 주장하며 일제를 비판하였다. 유관순은 서대문 감옥에서의 온갖 탄압과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옥중 만세를 불렀다. 일제 전옥 간수들의 횡포에 맞서고 때때로 독립만세를 고창하여 감방에서 끌려나가 간수들에게 무수히 폭행을 당하고 내팽개쳐지기가 일쑤였다. 다른 인사들은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유관순은 ‘삼천리 강산이 어디면 감옥이 아니겠습니까?’라며 상고를 포기하였다.

3·1운동의 1주년인 1920년 3월 1일에 서대문형무소에서 대대적인 ‘독립만세’의

17) 노마리아의 증언, 1974년

의침이 있었다. 이날 간수들에게 심한 구타로 방광 파열상 및 전신 피멍이 들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유관순은 아우내장터 독립운동 당시에 총검에 찔린 상처로 수시로 고름을 짜내야 했고, 수시로 이어진 간수들의 폭행에 몸은 만신창이 되어도 일체의 치료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유관순의 언행과 행동들은 순교자적 사명으로 살았다고 보아야 한다. 지하 감방에 감금되어 야만적이고 무자비한 고문으로 인해 방광이 터지고 고문의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순국하였다.

4. 유관순 열사의 잔다르크 정신

유관순 열사는 남녀 간의 평등과 국가발전의 토대가 여성교육에 있다는 이화학당의 근대 선진학문을 통해 조국과 민족에 대한 현실 파악과 저항정신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유관순은 조국을 구한 잔 다르크, 천사와 같은 나이팅게일 등처럼 살겠다고 기도하고 다짐했다고 한다. 프랑스의 순교소녀 잔다르크처럼 국가를 위할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던 평소의 꿈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행렬을 이끌며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였다. 행렬이 장터 복판에 이르자 쌀집 위로 올라가 우리의 독립의 중요성과 반드시 독립을 쟁취해야 함을 연설하며, 군중을 독려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도 온 천지를 활보하며, 우리에게 가진 학대와 모욕을 가하였습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온갖 압제와 설움을 참고 살아왔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독립 만세를 불러 나라를 찾읍시다.”

유관순 열사가 좋아했던 잔 다르크는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다. 외삼촌 한분은 상파뉴에서 목사일을 보고 있었고, 오빠는 모두 세 명이었는데 모두 마을에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져 있었다. 열세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음성은 점점 자주 들려왔다. 잔 다르크가 영국군에 포위된 오를레앙을 해방시킬 때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 영국군에 맞서 싸우라하신다”라고 외쳤다. 유관순과 잔다르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교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죽기까지

굴하지 않고 애국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과 기도의 힘이 작용되었다.¹⁸⁾

5. 유관순 열사의 비폭력·한알의 밀알 정신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는 성경 말씀처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유관순은 독립운동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원했던 것이다. 서슬퍼런 일제하에서 목숨을 내놓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기개와 용기는 무서울 정도로 놀랍다.

“산으로 올라가서 보니 장터가 뻥히 보여. 장터가 보이는데 이 순박한 농촌양반들이 어리석게 시리 조 박사 아버지니, 유관순이니, 유애득이니, 너의 할아버지니 증조할아버지니 몇 몇 사람들이 말거나 한다는 사람들이 그 지서 지금으로 하면 지서지 그전에 거기는 병참이야, 병천에 가서 포위하고서 수 백 명 장꾼이 거기 가서 포위하고, 거기 있는 헌병 몇 사람을 결박해서 끌어앉히고, 그 놈들이 조선독립을 주냐? 그렇게 어리숙하게. 그 사람들한테 독립을 주냐, 안 주냐 하고 그 놈들한테 하니. 조금만, 조금만, 빨리 조금만 하는 건 천안으로 전화를 해놔. 여기서 위태로우니까. 응원단 오라고, 그러니 응원대 들어 올 때를 기다리느냐고 조금만, 조금만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올라갈 때 천안 읍에서 들어오는 거야. 트럭으로 두 트럭인가 세 트럭인가 들어오는데 말짱 태극기기를 해서 들고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들어오는 거야. 차가 들어오니까 촌 양반들이 무서워서 눈으로 밭으로 도망질을 가는 거야.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총을 쏘. 우리가 산에 있으니까 우리가 있는 산에다가도 총을 쏘. 우리가 무서워서 내려오지 않았어. 그 다음에 총소리가 전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총소리가 호됐는지. 그때 큰아버지, 큰어머니, 유관순이 어머니, 아버지가 다 시장에서 총을 맞았어. 관순이 어머니는 시장에서 즉사하고, 관순이 아버지는 옆구리를 맞았는데, 생명은 붙어있으니까 말도 하고 그래 집에 떠메고 들어왔어.”¹⁹⁾

18) 김춘식, 「유관순과 잔다르크 비교연구」, 『유관순연구』, 제8호, 2006. 29쪽

19) 노마리아 증언.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된 유관순의 묘지는 1930년 일제의 도로계획과 공동묘지의 군용기지화로 사라졌다. 민란에 대비하고, 민족의식 분열을 노린 일제로서는 철저하게 주민들의 언행과 행동들을 감시했다. 이러한 일제로서는 하루빨리 유관순의 묘지를 없애려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6. 유관순 열사의 간절한 기도이다.

유관순 열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조국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도 언젠가는 조국을 위해서 몸 바쳐 일하는 여성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고 한다. 한번은 김종우 목사를 청하여 교내 부흥회를 연 적이 있었다. 이때 전교생은 대강당에 모여서 설교가 끝난 후에 제각기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갔다. 기도에 들어가기 전 김종우 목사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타날 터이니 모두들 열심히 기도하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유관순 열사도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얼마를 기도했을까, 그에게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뜨거운 감동을 받으면서 한 줄기 감명이 지나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모세가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너 모세야 이제 가라’고 하는 그 확신과 같은 이상을 보았다는 것이다.²⁰⁾ 유관순 열사의 나라사랑에 대한 간절한 기도와 희생은 대한독립을 만들어 냈다.

V. 결 어

1880년대에 들어온 기독교의 전파는 교육과 의료사업을 통한 간접전도로서 전통사회와 마찰을 피할 수도 있었고 여성생활에 미친 효과도 현저했다.²¹⁾ 1910년도에서 1920년대에 이르는 여성교육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독교계가 주축을 이루었으며 근대지식을 습득한 여성지도자들을 배출하게 된다. 유관순 열사의 기독교 정신계승에서 첫째 나라사랑 정신이다. 유관순은 고향으로

20) 김기창, 「유관순의 기독교적 리더십 연구」, 『유관순연구』, 제4호, 2005, 25쪽

21) 이배용, 「한국근대사의 전개와 여성의 지혜와 힘」, 『유관순연구』, 제5호, 2005, 43쪽

내려오는 기차에서, 덜컹거리는 기차소리를 친구들이 ‘동전 한 푼 동전 두 푼하는 것 같다고 하자, 유관순은 ‘조선독립! 조선독립!’하는 소리로 들린다고 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다. 둘째 순교자 정신이다. 만세운동 이후 유관순은 자신의 부모가 죽고 난 후 자신의 도피에 회의를 느끼고 순교의 각오로 당당히 일본 헌병앞에 스스로 나타났다. 또한 서대문 감옥에서 유관순은 삼천리강산이 어디나 지금은 감옥과 같으며 상고를 거부하고 수시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고문을 받았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옥중 만세 시위를 주도한 것이다. 유관순과 잔다르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교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죽기까지 굴하지 않고 애국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앙과 기도의 힘이 작용되었다. 유관순 열사는 젊은 나이에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점에서 프랑스의 영웅 잔 다르크와 닮은 점이 많다. 독립선언을 했던 33인도 대부분 회유와 협박에 친일세력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유관순 열사는 끝까지 순교자 정신으로 굴복하지 않고 평화롭게 저항하다가 순국하였다. 셋째 비폭력·한알의 밀알 정신이다. 유관순은 독립운동의 한 알의 밀알이 되길 원했던 것이다. 서슬퍼런 일제하에서 목숨을 내놓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기개와 용기는 무서울 정도로 놀랍다. 마지막으로 유관순 열사의 간절한 기도이다. 유관순 열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조국을 구원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도 언젠가는 조국을 위해서 몸 바쳐 일하는 여성이 되게 해 달라고 간구하였다고 한다. 유관순 열사가 나라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의 모세가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너 모세야 이제 가라고 하는 그 확신과 같은 이상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의 기독교적 신앙관이 오늘날 위대한 유관순 열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관순 열사의 기독교 정신을 잘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유관순 열사를 기념하는 계승운동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기창(2003), 「유관순 전기문(집)의 분석과 새로운 전기문 구성」, 『유관순연구』, 제2호, 81-121쪽.
- 김옥에(2002), 「유관순」, 국민서관, p11.
- 김춘식(2006), 「유관순과 잔다르크 비교연구」, 『유관순연구』, 제8호, p29.
- 박철희(2008), 「공주지역 독립만세운동의 재조명」, 『한국문화도서관』, P11.
- 이배용(2005), 「한국근대사의 전개와 여성의 지혜와 힘」, 『유관순연구』, 제5호, p43.
- 이정은(2005), 「불꽃같은 삶, 영원한 빛 유관순」, 사단법인 류관순열사기념사업회, p445.
- 홍석창(2005), 「매봉교회가 낳은 민족의 보배 유관순」, 『한국감리교사학회』, p116.
- 「大正8年」乃至同 10년 조선소요사건관계서류 共7冊 其1, [전보: 전국 각지의 시위 상황], 발신자 조선헌병사령관, 수신자 육군대신, 발신일 1919년 4월 2일 조선총독부 관보 1914년 8월 27일 호외 1호, 조선총독부 고시 제338호(34쪽), 1914년 9월 1일.
- 유제경의 인터뷰. (2009년 3월 18일 녹취).
- “영명100년사”, p218.
- 노마리아의 증언, 1974년.
- Aunt Jean by Jeannette Walter, 1970, Boulder, Colorado, Johnson Publishing Company. (진아주머니, 월터자서전) p. 143.

The influence of Yu Gwan-soon's Christian spirit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Lee KeonSu*

Abstract

Yu Jung-kwon, the father of Yu Gwan-soon, was influenced by his grandfather Yoo Yoon-ki and uncle Yoo Jung-moo's acceptance of Christianity. In 1908, Yoo Bin-ki, a grandfather of the family, formed a friendship with Severance's doctor, American Cable Missionary, and obtained a thatched house, hung a bell, attached a cross, and began mission. As a result, grandfather Yoo Yoon-ki and uncle Yoo Joong-moo were inspired and became Christians, and uncle Yoo Joong-moo worked as missionaries for the church. Yu Gwan-soon's independence movement began with an armed and non-violent independence movement, but as Japanese imperialism attacked enemy forces with guns and swords, numerous students, ordinary people, and farmers were killed by ruthless suppression. Students from schools and Ewha Womans University in Seoul participated in the second Seoul Independence Movement in which Yu Gwan-soon participated. Yu Gwan-soon, who was arrested and released, came down to his hometown of Cheonan and planned an independence movement with his Christian family. On April 1, 1919, (March 1, the lunar calendar), the Manse Movement in Byeongcheon, Cheonan, sacrificed the parents of martyr Yu Gwan-soon and numerous people. Advisor Yu Gwan-soon, who was arrested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was more severely tortur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Okjung Manse Movement and died at the age of 19. Yu Gwan-soon has many similarities with French hero Jeanne Arc in that he sacrificed his life for his country under the call of God when his country was in crisis at a young age. Most of the 33 people who declared independence were transferred to pro-Japanese forces by appeasing and threatening. However, Yu Gwan-soon did not give in to the spirit of martyrdom until the end, resisted peacefully, and died. In order to grasp the martyristic Christian spirit of patriotic martyr Yu Gwan-soon, it is intended to help study the influence of Christian missionaries, the people who instilled Christian faith, and the influence on Christian schools and inherit the Christian spirit.

Keyword: Martyr Yu Gwan-soon, Christian spirit, independence movement, prison hooray movement, and spiritual succession

* Professor Baekseok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ce, Doctor of Criminology